



광주·전남지역 전·현직 자치단체장 등 7명이 3일 오후 광주 YMCA 무진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거부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해 지방자치의 지킴이로 다짐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관규 순천시장, 이정훈 전 나주시장 부인 주향덕 예비후보, 한 사람 건너 이청 장성군수, 황주홍 강진군수, 황일봉 광주남구청장, 이성용 광양시장, 선언에 참여한 박우량 신안군수는 선거사무실 개소 때문에 나오지 못했다. /나평주기자 mjna@kwangju.co.kr

## 강운태 민주 광주시장 후보 확정

### 재심위, 이의신청 기각...이용섭·정동채 승복

강운태 의원이 3일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로 사실상 확정됐다. 민주당공천 재심위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광주시장 경선에서 패한 이용섭 의원이 강 의원 측에 의해 여론조사가 불법으로 이뤄졌다고 제기한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고 보고했고, 최고위는 이를 수용했다.

〈관련 기사 3면〉 앞서 재심위는 지난달 28일 재심위원 7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 의원의 재심 신청에 대한 비밀 투표를 했으며 이날 개표 결과 기각 의견이 5표, 인용 의견은 2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여론조사'에 강 의원 측이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는 데다, 시민 지지

도 1위인 후보를 교체할 만한 명분도 없는데 따른 정치적 결정으로 풀이된다. 강 의원은 이에 따라 다음 최고위원회의에서 광주시장 후보로 의결된 후 오는 7일 당무위원회의의 인준을 거쳐 최종 후보로 확정될 예정이다.

강 의원은 재심 기각 직후, "광주시민의 변함없는 지지와 합리적 결정을 내린 재심위와 지도부에 감사 드린다"며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고 모두가 하나가 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애진하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4일 국립현충원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는 등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로서의 본격적인

행보를 나선다. 한편, 경선에서 탈락한 이후 재심을 요청했던 이용섭 의원과 정동채 전 의원은 "당의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내려진 당의 결정이 유감스럽지만 당의 통합과 화합을 위해 그 결정을 받아들여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그동안 광주시장 경선에서 지지해준 시민과 당원들에게 감사 드리며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헌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정당공천 반대 전·현직 단체장 7명 연대 선언

# '무소속 연대' 거센 돌풍 예고

### 공천 후유증 민주당 선거전 대응 주목

민주당 텃밭인 광주·전남에서 조직과 경험이 풍부한 전·현직 자치단체장들이 3일 무소속 연대를 선언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거센 돌풍을 예고했다. 이들은 갈수록 증폭되고 있는 민주당의 공천파행은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를 망칠 것이라며 '정당이 아닌 지역발전 비전과 인물을 보고 찍어달라'고 호소했다. <관련기사 3면>

광주·전남지역 무소속 전·현직 자치단체장 등 7명은 이날 오후 광주 YMCA 무진관에서 '7인 단체장 연대 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에는 ▲노관규 순천시장 ▲박우량 신안군수 ▲이정훈 전 나주시장 ▲이성용 광양시장 ▲이청 장성군수 ▲황일봉 광주 남구청장 ▲황주홍 강진군수 등이 참여했다.

다만, 박우량 군수는 선거사무소 개소식과 겹쳐 행사장에는 나오지 못했다. 이들 가운데 피선거권이 박탈된 이정훈 전 나주시장은 부인 주향덕씨가 이미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으며, 나머지도 모두 이번 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할 예정이다.

민주당 후보 경선에 불출마했던 노관규 순천시장은 4일 민주당을 탈당, 무소속으로 '재선' 출마를 선언할 계획이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정당들은 필요도, 명분도 없는 정당공천을 강행해 지역을 분열시키고 있다"며 "이번 선거는 지방선거인 만큼 정당을 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발전 정책과 인물을 보고 찍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정부패를 조장하는 정당공천제를 거부하고 당당히 무소속 출마의 길을 걸지만, 무소속 출마를 지지하는 유권자와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압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총 12페이지로 제작되는 후보 선거 홍보물 중 1페이지를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한 배경과 의미 등을 게재해 공동 제작하기로 합의하는 등 구체적인 연대 방법도 향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지방분권 국민운동,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국민운동 광주·전남본부(이하 국민운동 광주·전남본부)는 정당공천제를 반

대하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후보를 추가로 모집해 14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추가 기자회견도 가질 예정이다.

특히 민주당 후보로 전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했던 이석형 전 함평군수도 최근 '무소속'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무소속 후보군이 기초단체장부터 광역단체장과 기초의원 후보까지 광범위하게 이뤄질 지도 관심사다.

또한, 국민운동 광주·전남본부는 이날 연대를 선언한 각 후보들의 지역에 '시민자이론봉사자'를 파견하는 등 선거지원과 봉사활동을 벌이기로 하는 한편 전국적인 연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따라서 최근 심각한 공천 후유증으로 지지기반이 위축되고 있는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한 무소속 후보와의 선거전을 어떻게 펼쳐 나갈지 주목된다.

/최경일·김지을 기자 cki@kwangju.co.kr

## "김정일 다렌에서 목격"

### 특급열차 타고 국경 넘어 중국 방문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3일 오전 중국을 전격 방문했다. 김 위원장의 방문은 2006년 1월 이후 4년4개월 만이다. <관련 기사 5면>

특히 18개월간 중지됐던 북핵 6자 회담의 재개 가능성이 있고 천안함 사태로 긴장감이 높아진 한반도 정세 흐름에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서울과 베이징(北京)의 외교 소식통들은 이날 "김 위원장이 오늘 오전 특급열차를 이용해 북·중 국경을 넘

어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5시20분(한국시각 6시20분)께 전용 특별열차를 이용해 북·중 접경지역인 중국 단둥(丹東)에 도착한 뒤 다렌(大連)으로 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이 탑승한 특급열차는 17량 짜리 여객열차로 단둥역에 잠시 정차해 기관차만 교체한 뒤 곧바로 다렌으로 출발했다.

다렌의 유력한 외교소식통은 이날 "푸리화(富麗華)호텔에서 김 위원장

을 직접 목격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다렌에서 1박한 뒤 선양(瀋陽)을 거쳐 베이징으로 향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의 전체 방중일정은 2박3일 또는 3박4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방중기간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우방궈(吳邦國) 전국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 리커창(李克強) 부총리 등의 중국 수뇌부를 만나 북핵 6자회담 복귀와 대북 경제지원, 천안함 사건 등을 놓고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관측된다. /연필뉴스

학교설립 56주년 (1954~2010)  
믿음, 소망, 사랑으로  
커렷디로 세상을 만드는  
젊은 지성인 양육의 요람!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 새 골프여제 신지애 세계 1위

함평골프고 출신 '골프 여제' 신지애(22·미래에셋)가 3일 여자프로골프 세계 1위에 올랐다. <관련기사 18면> 신지애가 지난 2일(이하 한국시각) 일본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사이버 에이전트 레이디스 골프토너먼트에서 우승했지만, '골프여제' 로레나 오초아(멕시코)가 멕시코에서 열린 LPGA 투어 트레스 마리야스 챔피언십에서 6위(12언더파 280타)에 그치면서 순위가 변동한 것이다. 이로써 오초아는 지난 2007년 4월23일부터 지켜온 1위를 신지애에게 내주게 됐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 5월 호남예술제

### 미술·작문대회

신청기간: 2010.5.6(화)~5.13(화)  
발표대회: 2010.5.24(월)  
문화축제: 2010.5.27(목), 28(금)

주최: 광주광역시 - 광안동  
주관: 광주광역시 문화재단  
주최: 광주광역시 문화재단